新年辭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尺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밝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일감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우리 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해 온 주역으로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 왔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일감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회원사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 등 제반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부산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건설 본공사"에 최소 30% 이상,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SOC사업) 공사"에 70% 이상 부산 전문건설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중앙회와 함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이"라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 되도록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와 비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책정, 불합리한 법과 제도, 일방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 등전문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을사년, 회원사들과 함께라면 수많은 난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회원사 모두가 대외 경쟁력 향샹과 기업의 내실을 다져 자강불식(自强不息: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않고 노력하다)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2025년 한해 한 발짝 더 성장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2025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푸른 뱀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 장 김 형 겸